

“남자다워라” 한마디가 ‘불행의 사슬’ 된다

남자다움의 사회학

필 버커 지음·장영재 옮김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남자다워라’는 한마디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사실, 이 ‘남자답다’ 말에는 현대 사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깃들어 있다. 가정 폭력, 여성 혐오 등의 근원은 ‘진정한 남자’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남자다움’ 때문이다.



요리를 통해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도 ‘남자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이른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필 버커의 책 ‘남자다움의 사회학’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럴 듯 수긍이 가는 것은 많은 남자를 내면에 자리한 ‘남자다움’이 허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남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남자다움을 강요받는다.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감정을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순간순간 남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강요가 따른다. 책에서는 이 같은 남자다움의 특징을 ‘맨박스’로 정의한다. 맨박스의 특징은 반드시 상자 안에 또는 밖에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입구에 한 발만 걸칠 수 없는’ 상태로, “완벽한 실천과 함께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서 계집애 같은 남

자라고 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국 이 모든 남자다움의 피해는 여성으로 향한다고 본다. 남자다움이 유발하는 일그러진 양상들은 고스란히 약자에게 전이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남자다움의 규범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불행하게 만든다. 평생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강력한 사슬’과도 같다. 저자는 “일방통행식의 수직적 관계로 얼룩지고 강인함을 가장하는 남자다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업 및 사회환경이 달라지면서 성격에 따른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인간적 자질, 즉 창조성과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강조한다. 한때 남자들은 노동의 대가, 경제를 쥔

임진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복종을 받았다.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예전과 같은 단순화된 관계는 통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자동화 혁명에 따라 남자의 권력과 지위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남자들이 하던 일을 훨씬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하루 24시간씩 할 수 있다. 무인 트럭이 바깥 차선을 달리고 배송 드론이 하늘을 채우게 된다. 영화, TV,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초현실적 아바타들이 배우를 대체할 것이다. 당신은 말하는 로봇에게 커피를 주문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자다움에서 벗어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위적인 말인데 그것은 ‘강요당

하는 남자다움’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자다움’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과거의 남성 우월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상, 미래의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자질인 창조성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하나, 남자에게 어려우면서도 보람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훌륭한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아이에게 항상 아버지가 함께할 것임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며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단지 보스, 리더, 집행자, 문제해결사, 공급자, 가장이 되는 것으로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소스의 책·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언니의 독설’, ‘엄마의 자존감 공부’ 등을 쓴 김미경의 3년만의 신작이다. 마음, 일상, 관계, 꿈 4개의 파트로 구분된 내용을 처음에는 김미경의 시선으로, 그다음에는 구독자들의 시선으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머지않아 ‘나를 살리는 한마디’를 마주하게 된다. 책은 ‘함께 함으로써 ‘혼자’ 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선물한다. <21세기북스·1만6000원>



▲치유하는 나무 위로하는 숲=치유하고 위로하는 식물의 능력을 활용하고 다시 지구의 녹색공간들과 연결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여러 과학적 근거를 통해 산림욕, 생태에너지 경관, 실내 공기정화식물 같은 녹색 치유요법들이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아울러 이런 요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목수책방·1만7000원>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정영 원장이 알려주는 인문 심리서. 저자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부터 제대로 보기를 권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셀프 심리 코칭 과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정신의학 이론을 토대로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데이

터화하는 방법은 물론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해볼 만한 팁도 제시한다. <다산초당·1만5800원> ▲영혼의 집 짓기=저자 데이비드 기펠스는 삶과 상실에 관한 고찰, 노년의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든 감정을 섬세하게 기록한다. 은퇴한 토목 기사인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몰입한 저자는 아버지 작업실에서 함께 관을 만드는 3년동안 암으로 어머니와 친구를 잃었다. 이 와중에 아버지에게도 암이 재발하고 만다. 운통 죽음으로 둘러싸인 날들을 보내며 저자는 죽음과 늙어감, 삶과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다산책방·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감나무 위 꿀단지=복싱 어머니가 공산 계리인 빨치산에게 시동생을 빼앗겼지만, 자신들을 해치러 온 그들이 기침을 해대는 것이 안타까워 아끼는 꿀단지를 쥐 버린다는 이야기로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잃어버린 사진 값’, ‘백 번째 시루떡’, ‘내 더위’, ‘택배로 온 환잔이’ 등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다. <가문버어린이·1만원>



▲야구장 가는 날=그린이는 난생처음 아빠와 함께 야구장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낸다. 사실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갔다가보다는 치킨을 먹으러 갔던 그린이는 경기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들떠 아빠와 함께 멋지게 파도타기 응원도 하며 야구장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만끽한다. 그린이는 신나게 응원하면서 어느새 이기고 지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안녕, 봄=살을 에는 것 같은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하루하루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파릇파릇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책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봄이 오면 자연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포착한 그림책이다.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 돋아난 연두빛 풀들, 언 몸을 녹이고 재갈재갈 흐르는 시냇물, 눈부신 해의 따스한 기운 등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봄을 만날 수 있다. <국민서관·1만원>



“취향 수집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복”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신미경 지음



그녀의 첫 수집은 열 살 무렵이었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같은 명작 소설을 돈을 모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만화잡지와 패션잡지를 매달 구입했다. 스무살 즈음부터는 돈이 생기면 구두를 샀고 신발 상자를 빼곡히 쌓아올렸다. 지금 이 물건들은 모두 어딘가로 사라졌다. 가지고 싶은 물건을 손아귀에 넣는 순간 느끼는 성취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집욕망을 느낀 건 그림. 원한다고 떨칠 수 없는 것도 아닌 터라 도록, 포스터 등을 모았다. ‘미니멀

리스트’를 추구하는 지금 그녀가 수집하는 건 손바닥 만한 ‘작은 그림엽서’다. 책갈피로도 사용하고, 책상 앞에 붙여 두며 위안을 얻고, 그 느낌을 나누고 싶을 땐 누군가에게 엮어서 보낸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의 저자인 에세이스트 신미경의 신작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는 “예전에는 무얼 좋아하는 지 몰랐고, 남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던” 저자가 “무작정 시도한 미니멀 라이프에서 답을 찾으려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적게, 바르게

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담긴 최소 취향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일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복이자, 흔들리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각자가 그 ‘최소 취향’을 찾아가길 권한다. 책은 ‘최소 생활주의자:적게 가지고 빠르게 생활하기’, ‘하나뿐인 스타일:결국 스타일만 남았다’, ‘조금은 가볍게 일하기:최소한 나를 만족시키는 일’ 등 7장으로 돼 있다. 어느 사람처럼 사회 생활하며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던 ‘나대기’도 했던 저자는 복유럽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에 녹아 있는 ‘안테의 법칙’을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며 평온을 얻는다.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

의 소설 ‘도망자, 그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서 건너다’에 등장하는 가상의 마을 앞엔 주민들은 “나는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며,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알지 않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 저자의 최소 취향은 이런 것들이다. 겨울에 신는 모직양말의 행복감, 작게 접어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종이 신문을 읽는 것, 알고 싶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세계가 있다면 그 분야를 다른 만화책을 찾는 것, 술 대신 탄산수와 마들렌 한 조각으로 성찬을 즐기는 것, 좋아하는 남의 동네의 ‘명예주민’이 되는 것 등등. 저자는 또 ‘소유물(사회적 지위, 재산 등)과 자신을 동일시여긴 현대인의 조 절을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일독도 권한다. <상상출판·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